‘카카오 게임즈’ 역대급 흥행에 게임주 순풍 예고

경쟁률 1524대 1…증거금 역대 최고 58조 기록

바이오팜 넘어선 흥행…10일 상장에 ‘따상’ 기대

카카오·게임주, 코로나 비대면 수혜에 실적 호조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2일 역대 최고 수준의 증거금을 거두면서 공모주 청약 흥행에 성공하자, 모회사인 카카오와 다른 게임주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주인데다, 최근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카카오(035720)는 3일 오전 10시께 0.73% 하락한 40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카카오의 첫 계열사 상장인 카카오게임즈의 흥행으로 2.62% 상승 마감한 뒤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카카오게임즈는 공모주 청약에서 1524.85대 1의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증거금이 58조5542억원 걷혔는데 이는 공모주 역사상 최고치다.

SK바이오팜을 넘어서는 흥행에 성공하자, 오는 10일 상장하면 바이오팜과 마찬가지로 ‘따상(공모가 2배 가격으로 시초가 형성, 이후 상한가)’을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모기업인 카카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의 최대주주(58.9%)이자 카카오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카카오 게임하기’는 카카오톡 메신저 플랫폼의 트래픽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마케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약 1000만명에 달하는 국내 모바일 게임 이용자 행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 카카오톡 광고 상품과 플러스친구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한다.

카카오톡 푸쉬 마케팅 등 메신저 플랫폼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카카오는 공모주 흥행 이슈를 제외해도 코로나19 사태로 대두된 비대면 수혜주란 점, 인공지능 연구에 적극 투자한다는 점, 핀테크를 비롯 다양한 서비스의 실적 호조세란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로 49만원을 제시하며 “카카오뱅크는 올해 2분기 순이익 268억원을 기록했고 카카오페이증권은 5개월 만에 증권계좌 170만개 기록을 올렸다”며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지, 카카오TV, 카카오T, 게임, 멜론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카카오 기반 테크핀 서비스 이용자의 충성도가 더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카카오게임즈 흥행으로 다른 게임주도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다.

게임주 역시 비대면 수혜주인 데다 최근 증시 자금이 바이오와 게임 등 성장주로 쏠리고 있어서다.

이날 오전 10시께 넷마블(251270) 6.36%, 펄어비스(263750) 0.22%, 컴투스(078340) 0.40%, 더블유게임즈(192080) 0.26%, 베스파(299910) 0.83% 등 상승세다.

게임 대장주 엔씨소프트(036570)는 전날 2.66% 상승마감한 뒤 이날 0.94% 조정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 강세가 전망된다.

김학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게임사 지표가 특히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대폭 개선됐다”며 “해외게임 비중이 높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호실적이 나타났는데 4분기 계절적 영향과 맞물려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 같다. 이는 국내 업체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을 위해 삼성증권 마포지점에 방문한 투자자들의 모습. (사진=삼성증권)

엔씨소프트에 대해서는 “3분기 리니지2M 부진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 하반기에는 기존 게임들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다수 준비하고 있어 실적 반등을 이룰 것”이라며 “대만지역에서도 리니지2의 IP파워가 입증된 만큼 최상위권 매출을 기록하면서 둔화된 리니지 2M 성과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봉우 기자

기아차 “전기차 구매 부담 줄이고 충전비 지원까지”

차량 가격 최대 55% 유예…니로EV 매달 30만원에 구매

기아자동차가 전기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E-세이브’ 할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차량 가격 일부 유예 ▲초저금리 적용 ▲충전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됐다.

기아차에 따르면 이달 중 니로EV와 쏘울EV를 구매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총 36개월 할부 기간 동안 ▲선수율 제한 없이 차량 가격의 최대 55% 유예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 및 유예금에 대한 1.9% 초저금리를 제공한다.

‘E-세이브’ 할부 프로모션을 통해 니로EV 차량을 구매할 경우 매달 약 30만원을 납입하고 마지막 할부금 납입 회차에 유예금을 함께 내면 된다.

프레스티지 트림을 기준으로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1270만원 및 개소세 감면을 반영하면 실구매가는 3510만원이다.

할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차량 대차를 원하는 고객은 중고차 가격보장 서비스를 통해 구매 가격의 최대 55%까지 중고차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실질적으로 유예금 부담 없이 36개월 간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가능한 셈이라고 봤다.

‘E-세이브’ 할부 프로모션 이용 고객에게는 60만원의 전기차 충전 포인트 혜택도 제공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구매 부담은 물론 운행 부담까지 획기적으로 경감한 할부 프로모션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기아의 전기차를 만나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구매 고객의 부담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는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케어 프로그램 ‘스위치온(Switch on)’을 운영하고 있다. ▲기아 레드멤버스 전기차 전용카드를 통한 월 최대 3만원 충전요금 할인혜택 ▲중고차 가격보장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전기차 고객 종합 케어 프로그램이다.

김민정 기자

현산, 아시아나 재실사 또다시 요구

사실상 노딜 수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채권단에 밝히면서 M&A(인수·합병)가 결국 ‘노딜’(No deal·인수 무산)로 끝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산은 전날 이메일을 통해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하는 입장을 산업은행(산은) 등 아시아나 채권단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산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지난달 26일 만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이 회동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산의 인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산은은 “아시아나항공 M&A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현산측과 인수조건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했다”며 “이에 대한 현산 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며, 이후 일정은 답변 내용에 따라 금호산업 등 매각주체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산이 금호산업과 채권단에서 앞서 거절한 바 있는 재실사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결국 ‘노딜’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M&A(인수·합병) 문제를 놓고 현대산업개발에서 내부적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며 “현산이 재실사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딜이 깨졌을 때를 염두에 둔 것 같다. 계약 파기의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상황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인수 주체인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둘러싸고 날선 책임공방을 연일 벌였다. 현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나의 상황이 악화된 것을 강조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에 대한 12주간의 재실사를 7월 26일 요구했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이미 충분한 실사가 이뤄졌다며 재실사를 거부하고, 현산의 아시아나 인수 의지에 의문을 표했다. 채권단은 현산이 최종적으로 아시아나 인수를 포기하면 플랜B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딜이 깨질 경우 새 인수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만큼 채권단 관리체제에 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미희 기자

7월 온라인·모바일 쇼핑 역대 최대…음식배달 늘고 영화·여행 줄고

통계청 ‘7월 온라인쇼핑동향’…거래액 15.8% 증가한 12.9조

지난 7월 기준 온라인과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일제히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배달음식과 생활용품 구매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영화, 여행 예약 등에서는 큰 폭의 거래액 감소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11조1973억원) 대비 15.8% 증가한 12조962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1년 집계 이래 직전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작년 11월(12조8520억원)을 넘어서는 기록이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 서비스(66.3%), 생활용품(48.0%), 음·식료품(46.7%) 등에서 증가가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변화가 뚜렷하게 반영된 모습이다.

농축수산물(72.8%),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63.4%), 가구(47.4%),컴퓨터 및 주변기기(38.4%) 등에서도 증가가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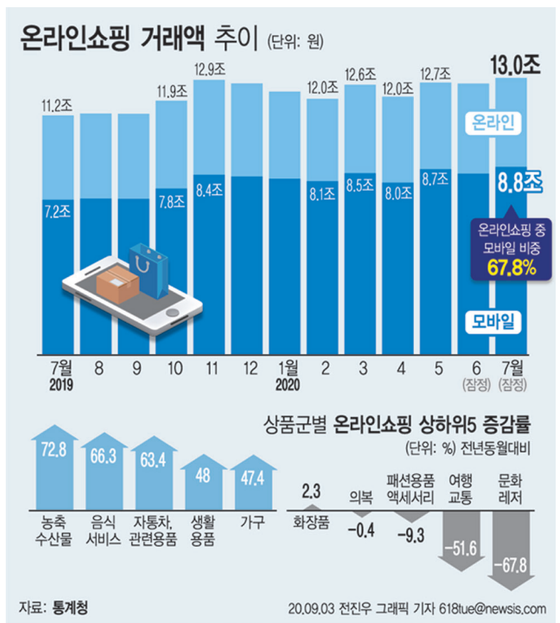
통계청은 배달음식과 간편조리식 등 집밥 수요는 물론 생활필수품, 집 꾸미기 용품, 생활가전 등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7월에는 긴 장마의 영향으로 가정 내 소비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외부활동 자제로 영화관람, 여행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이 감소하면서 문화 및 레저서비스(-67.8%), 여행 및 교통서비스(-51.6%) 등에서 감소했다.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9.3%)와 의복(-0.4%) 등에서도 소폭 감소가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21.2% 증가한 8조7833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음식 서비스(68.6%), 음·식료품(58.1%), 생활용품(56.9%) 등에서 증가했고 문화 및 레저서비스(-68.2%), 여행 및 교통서비스(-38.8%), 화장품(-31.2%) 등에서 감소했다.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67.8%로 1년 전보다는 3.1%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음식 서비스(95.0%), e쿠폰서비스(82.1%), 가방(78.9%) 등에서 모바일 쇼핑 비중이 높았다.

한편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여행 및 교통서비스 등 서비스거래액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상품 소비의 4분의 1 가량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선옥 기자

수입차 시장 회복…2만1894대 신규등록

지난 8월 국내 수입차 시장이 7월에 비해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8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2만1894대로 집계됐다. 직전 달인 7월 1만9778대보다 10.7% 증가, 지난해 8월 1만8122대보다 20.8%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1~8월 누적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전년 동기보다 15.7% 증가한 16만9908대로 집계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임한규 부회장은 “8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전반적으로 브랜드별 물량 부족이 있었음에도 일부 브랜드의 대기수요 해소로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잘 팔린 모델은 BMW의 520(1097대)이 차지했다. 메르세데스-벤츠 A 220 세단(781대), BMW ㄹ520d(727대)가 뒤를 이었다.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BMW가 7252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6030대), 아우디(2022대), 미니(1107대), 폭스바겐(881대), 렉서스(703대), 포르쉐(554대) 순이다. 이 외에도 쉐보레 464대, 포드 437대, 토요타 433대, 지프 410대, 볼보 336대, 랜드로버 280대, 혼다 241대, 푸조 216대, 링컨 144대, 캐딜락 89대, 마세라티 74대, 시트로엥 60대, 람보르기니 33대, 벤틀리 22대, 롤스로이스 17대 등이 판매됐다.

배기량별로는 2000cc 미만 1만4435대(65.9%), 2000~3000cc 미만 5346대(24.4%), 3000~4000cc 미만 1595대(7.3%), 4000cc 이상 198대(0.9%), 기타(전기차) 320대(1.5%)다.

국가별로는 유럽이 1만8937대(86.5%)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미국 1544대(7.1%), 일본 1413대(6.5%) 순이다. 연료별로는 가솔린 1만1131대(50.8%), 디젤 7806대(35.7%), 하이브리드 2637대(12%), 전기 320대(1.5%) 등이다.

구매유형별로는 2만1894대 중 개인구매가 1만3747대로 62.8%를 차지했다. 법인구매는 8147대(37.2%)다.